

<http://dx.doi.org/10.17703/JCCT.2024.10.3.651>

JCCT 2024-5-73

육아 인력 비용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

The Impact of Childcare Workforce Cost on Fertility Rates

남영희*

Young-Hee Nam*

요약 본 연구는 육아 인력 비용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국가별로 비교 분석하였다. 북유럽 국가들의 사례에서는 포괄적인 육아 지원 정책과 육아 인력 비용 지원이 출산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동아시아 국가들에서는 높은 육아 부담과 경제적 압박이 출산율 저하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개발도상국의 경우, 육아 지원 정책의 효과가 사회경제적 맥락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육아 인력 비용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이 국가별로 다양한 양상을 보이며, 효과적인 육아 지원 정책을 위해서는 각국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향후 육아에 대한 사회적 투자 확대와 함께 돌봄의 가치를 존중하는 문화 확산이 요구된다.

주요어 : 육아 인력 비용, 출산율, 국가별 비교, 육아 지원 정책, 사회경제적 맥락

Abstract This study comparatively analyzed the impact of childcare workforce cost on fertility rates across different countries. In the cases of Nordic countries, comprehensive childcare support policies and subsidies for childcare workforce costs were found to have a positive impact on fertility rates. In contrast, high childcare burden and economic pressures were identified as major factors contributing to declining fertility rates in East Asian countries. In developing countries, the effectiveness of childcare support policies varied depending on the socioeconomic context.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impact of childcare workforce cost on fertility rates manifests in diverse patterns across countries, and effective childcare support policies require tailored approaches that consider each country's specific circumstances. In the future, increased social investment in childcare and the spread of a culture that respects the value of care are necessary.

Key words : childcare workforce cost, fertility rates, cross-country comparison, childcare support policies, socioeconomic context

1. 서론

출산율은 경제, 사회, 문화적 요소들이 복잡하게 상호작용하는 결과이다. 특히, 육아 인력 비용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은 다양한 학술 연구에서 중요한 주제로 다뤄져 왔다. 고령화 사회와 저출산은 경제 성장, 노동 시장, 사회 보장 체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1]. 육아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및 비용은 출산율

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다. 육아 인력 비용이 가족의 출산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비용 부담이 출산율 저하의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육아 인력 비용과 출산율 사이의 관계를 심층 분석하여, 육아 비용이 가족 계획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하고, 효과적인 육아 지원 정책 개발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외 사례 연구와 이론적 검토를 근거로,

*정회원, 중앙대학교 복지행정학과 겸임교수 (제1저자)
접수일: 2024년 3월 5일, 수정완료일: 2024년 4월 12일
게재확정일: 2024년 4월 30일

Received: March 5, 2024 / Revised: April 12, 2024

Accepted: April 30, 2024

*Corresponding Author: yhn0435@naver.com

Dept. of Welfar and Public Administration, Chung-Ang Univ, Korea

육아 인력 비용이 출산율에 미치는 다양한 측면을 분석할 예정이다. 또한,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어 육아 인력 비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관련 정책 개발에 필요한 근거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육아 인력 비용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특히, 사회경제적 변수, 정부의 육아 지원 정책, 가족 구조가 이러한 관계에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탐색한다. 이를 통해 육아 인력 비용과 출산율 사이의 상호작용을 이해하고, 효과적인 육아 지원 정책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육아 인력 비용과 출산율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에 중요성이 있다. 저출산 현상은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직면한 중대한 사회 경제적 문제로 부상하고 있으며, 특히 OECD 국가들 중에서도 두드러진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2]. 육아 비용의 상승은 젊은 부부들의 출산 결정에 중요한 장벽으로 작용하며, 이는 국가의 인구 구조와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3].

따라서 육아 인력 비용과 출산율 간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은 저출산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 개발에 필수적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육아 인력 비용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조명하여,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개입의 필요성과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육아 인력 비용과 경제학적 관점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 경제학에서는 인적 자본 투자의 중요성과 가계의 소비 결정 과정에서의 육아 비용의 역할을 중요하게 다룬다. 인적 자본 이론에 따르면, 개인과 가계는 교육, 건강, 육아와 같은 영역에 자원을 투입함으로써 장기적인 수익을 기대한다. 이러한 투자는 노동 시장에서의 생산성 향상, 소득 증대,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진다는 가정 하에 이루어진다[4]. 그러나 육아에 대한 투자는 교육이나 건강과 달리 그 수익이 더 장기적이고 불확실하게 나타날 수 있어, 가계의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육아 인력 비용은 가계의 소득과 지출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육아에 드는 직접적인 비용과 함께,

부모 중 한 명 혹은 둘 다가 경제 활동을 제한하게 되는 간접적인 비용도 포함된다. 이러한 비용은 가계의 소비 패턴, 저축률, 투자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5]. 특히 여성의 경우,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이 장기적인 소득 손실로 이어질 수 있어 가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이는 가계의 효용 극대화과 최적 자원 배분이라는 경제학적 원칙과도 밀접히 관련된다.

육아 비용의 증가는 특히 젊은 부부들의 출산 결정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교육아 비용은 출산율 감소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인구 구조의 변화, 노동 공급의 감소, 사회 보장 체계에 대한 압박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6]. 경제학적 관점에서 볼 때, 출산과 육아에 대한 의사결정은 비용과 편익의 비교에 기반한다. 육아 비용이 지나치게 높을 경우, 출산과 육아의 편익이 비용을 상회하기 어려워져 출산율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OECD 국가들의 사례를 통해 보면, 육아 지원 정책이 잘 구축된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출산율과 여성의 노동 시장 참여율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북유럽 국가들은 유연한 근로 조건, 충분한 육아 휴가, 저렴한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가계의 육아 부담을 줄이고 경제적 활동을 촉진시킨다[7]. 반면, 육아 지원 체계가 미비한 국가들에서는 육아 비용 부담으로 인해 출산율이 저하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제한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따라서, 육아 인력 비용을 경제학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은 출산율을 높이고 경제적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개발에 있어 중요한 토대를 제공한다. 정부와 정책 입안자들은 육아 비용을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모색함으로써 가계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인구 감소와 관련된 장기적인 경제적 장애요인에 대응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보육 서비스의 공급 확대, 육아 휴직 제도의 강화, 가족 친화적 근로 환경 조성 등 다각적인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양하며,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개인적 차원에서 폭넓게 분석될 수 있다. 핵심 요인으로는 경제 상황, 여성의 교육 및 경력 개발, 가족 구조 및 가치관, 정부의 출산 및 육아 지원 정책 등이 있다.

사회문화적 가치관과 규범은 출산 행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나이지리아의 한 연구는 남아

선호사상, 여성의 사회적 지위, 대가족 선호 등이 아프리카 일부 지역 사람들의 출산 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했다. 이러한 사회문화적 요인은 개인과 가족의 출산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형성하며, 결과적으로 출산율에 영향을 미친다. 사회적으로 출산과 육아에 대한 가치가 높게 평가되고 지원적 문화가 형성될수록 출산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주택 가격, 생활비, 교육비 등 가계의 경제적 부담은 출산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미국의 한 연구는 주택 가격 상승이 출산 의도를 낮추는 효과가 있음을 발견했다[9]. 경제적 불안정성과 소득 불평등의 심화는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켜 출산율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반면, 안정적인 고용과 소득, 적정 수준의 주거비용은 출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은 결혼과 출산의 중요한 전제 조건이 된다.

여성의 교육 수준 향상과 경제활동 참여 증가는 출산율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친다. 높은 교육 수준은 일반적으로 출산 연령을 늦추고 출생아 수를 줄이는 경향이 있다[10]. 한편,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는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과 육아 부담으로 인해 출산율을 떨어뜨릴 수 있다. 그러나 양질의 일자리와 육아 지원 제도가 뒷받침될 경우, 여성의 경제활동이 출산율 제고에 기여할 수도 있다[11]. 성 평등과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사회 환경 조성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된다.

가족의 형태와 역할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는 출산 행태에 영향을 미친다. 한국에 대한 연구들은 만혼과 비혼의 증가, 가족에 대한 가치관 변화 등이 초저출산 현상의 주요 원인임을 지적한다[5]. 개인주의적 가치관의 확산, 자녀에 대한 경제적·심리적 부담 증가 등이 만혼과 비혼을 부추기고, 출산율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반면, 가족 친화적 사회 환경과 육아 지원 문화의 확산은 결혼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출산 및 육아 지원 정책은 출산율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프랑스, 스웨덴 등 일부 유럽 국가들의 사례는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출산 및 육아 지원 정책이 출산율 회복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12]. 현금 지원, 보육 서비스 확충, 일-가정 양립 지원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의 효과적인 조합과 안정적인 시행이 관건이 된다. 그러나 정책의 효과

는 사회경제적 여건, 문화적 요인 등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날 수 있어 맥락에 대한 세심한 고려가 필요하다[12].

이처럼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다양하고 복합적이다. 육아 인력 비용은 이 중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지만, 다른 사회경제적, 문화적 요인들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그 영향이 결정된다.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는 이러한 요인들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과 대응 방안 모색이 요구된다.

III. 육아 지원 정책과 출산율 간의 관계

육아 지원 정책과 출산율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은, 육아 지원 정책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하며, 이러한 정책이 어떻게 인구학적 동향과 사회경제적 요소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근거를 제공한다.

Murata(2022)는 육아 지원 정책, 내생적 출산율, 인적 자본 축적 간의 상호 작용을 살펴본다. 이 연구는 인적 자본이 정부나 부모의 교육 지출과 부모의 인적 자본에 의해 결정되며, 이러한 요소들이 출산율과 인적 자본 축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다. 또한 육아 지원 정책이 어떻게 자녀의 잠재 능력 발달과 가계 소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논의했다.

Wang et al.(2022)는 중국의 복잡하고 불확실한 출산 환경을 고려하여 경제, 시간, 고용의 세 가지 차원에서 재정 정책이 출산율에 미치는 내부 메커니즘을 탐구한다. 이들은 중국의 출산율 향상을 위해 정책 목표의 명확화, 재정 투자의 확대, 보육 산업 발전, 다양한 주체 간의 협력 개선 등을 제안한다[1].

Miyake(2023)는 일본의 출산율 감소 문제에 대해 정부의 육아 지원 정책과 공공 자본 투자 간의 효과를 비교한다. 이 연구는 공공 자본 투자의 증가가 경제 성장에 더 유리하며, 모든 세금 수입을 공공 자본 투자에 할당할 경우 성장률이 최대화될 수 있다고 분석한다. 반면, 육아 지원 정책은 단기적으로 출산율을 높이는 데 기여하지만 장기적인 경제 성장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2].

Rizzi & Rees(2023)는 벨기에의 가족 정책을 비교적 관점에서 분석하여 출산율과 성 평등을 지원하는지에 대해 논의한다. 이 연구는 출산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정책 특징들을 식별하며, 그 중 가족 수당과 출생 보너스, 3세 미만 아동의 보육 등록률이 중요함을 강조한다[3].

이러한 연구들은 육아 지원 정책이 출산율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지지하며, 이러한 정책이 사회경제적 요소와 인구학적 동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근거를 제시한다. 그러나 동시에 정책의 효과가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육아 지원과 경제 성장 간의 관계가 복잡적임을 시사한다. 따라서 육아 지원 정책은 사회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하며, 다른 정책 영역과의 조화와 우선순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특히, 육아 인력의 공급 확대와 처우 개선, 보육 서비스의 질 제고, 비용 지원 정책의 실효성 강화 등은 공통적으로 강조되는 과제이다. 이는 단순히 육아 비용 부담을 경감하는 차원을 넘어, 사회 전반의 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부모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며,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도모하는 종합적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또한, 일-가정 양립을 위한 사회 인프라 구축 또한 육아 지원 정책의 중요한 과제이다. 보육 서비스의 근접성, 직장에서의 육아 지원 제도, 유연 근무제 등이 부모의 일-가정 양립에 기여할 수 있음이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4,5]. 육아 지원 정책이 노동시장 정책, 성 평등 정책과 연계되어 추진될 때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종합하면, 육아 지원 정책은 출산율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지만, 그 효과는 사회경제적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각국의 상황에 맞는 정책 설계와 이행이 요구되며, 정책 간 조화와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 등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육아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책 수요자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고,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며,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도모해야 한다.

한편, 개발도상국에서의 육아 지원 정책과 출산율 변화에 대한 연구는 여러 입장의 결과를 제시한다. 일부 연구는 육아 지원 정책이 출산율 증가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고하는 반면, 다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정책들이 예상만큼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육아 지원 정책, 특히 공공 보육 시설의 확대와 육아 휴가 제도의 도입은 부모의 육아 부담을 줄이고, 특히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여 출산율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Novaira et al.(2021)의 연구는 파키스탄에서 공보육 시설에 대한 접근성 향상이 여성의 노동 참여와 출산율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준다[15]. 이러한 정책은 부모가 경제적 부담 없이 더 많은 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장려한다.

그러나 육아 비용, 교육비, 주거비 등의 경제적 부담은 개발도상국에서 출산율 저하의 중요한 요인이다. H. Kulu et al. (2021)의 연구는 일부 아프리카 국가들에서 경제적 압박이 출산 행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발견했다[16]. 이는 육아 지원 정책의 효과를 제한할 수 있으며, 따라서 출산율 증가를 위해서는 경제적 지원뿐 아니라 교육 및 주거 정책의 개선도 필요하다.

사회문화적 요인과 전통적 가치관 역시 출산율에 영향을 미친다. Finlay et al.(2018)의 연구는 에티오피아에서 여성의 교육 수준 향상과 가족 계획에 대한 수용도 증가가 출산율 감소에 기여했음을 보여준다. 반면, 일부 국가에서는 종교적 신념이나 전통적 가족 가치관이 높은 출산율을 유지하는 데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개발도상국에서 육아 지원 정책을 효과적으로 실행하는 데는 다양한 어려움이 존재한다. 예산 제약, 인프라 부족, 정책 실행에 대한 정치적 의지 부족 등이 주요 장애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Abufhele et al.(2021)은 중남미 국가들의 사례를 통해 보육 서비스 확대에 있어 재정적, 제도적 한계가 존재함을 밝혔다.

개발도상국에서 육아 지원 정책과 출산율 변화에 대한 연구는 이러한 정책이 출산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지만, 정책의 설계와 실행, 그리고 경제적,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한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개발도상국이 직면한 문제는 제한된 자원 내에서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한 육아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협력과 지원, 정부의 정책적 의지, 시민사회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또한, 육아 지원 정책의 효과는 교육, 보건, 여성 권익 향상 등 다른 발전 목표와의 연계 속에서 극대화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여아 교육에 대한 투자는 장기적으로 여성의 사회 경제적 지위 향상과 출산율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개발도상국의 육아 지원 정책은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SDGs)와 연계된 통합적 접근 속에서 추진될 필요가 있다.

반면 출산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연구결과들은 사회경제적 요인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러한 국가들은 경제 성장, 사회 변화, 정책 개혁 등의 과정에서 출산율의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기도 한다.

Alam & Pörtner(2018)의 연구는 방글라데시의 사례를 통해 여성의 교육 수준 향상과 경제활동 참여 증가가 출산율 감소의 주요 동인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여성의 사회 경제적 지위 변화가 전통적인 출산 행태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시사한다.

Rios et al.(2020)은 브라질의 Bolsa Familia 프로그램이 저소득층 가정에 현금을 지원함으로써 출산율을 높이는 효과가 있었음을 발견했다. 그러나 이러한 효과는 단기적이며, 장기적으로는 여성의 교육 수준 향상과 노동시장 참여 증가로 인해 출산율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처럼 개발도상국에서 육아 지원 정책과 출산율의 관계는 사회경제적 발전 단계, 문화적 요인, 정책 설계와 이행 역량 등에 따라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난다. 출산율 변화에 대한 정책적 대응은 각국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접근과 장기적 비전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동시에 육아 지원 정책의 궁극적 목표가 아동과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있음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IV. 결론

1. 육아 인력 비용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

육아 인력 비용은 출산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앞서 살펴본 국가별 사례에서도 이러한 비용 부담이 출산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M, A., Sobotka, T. & Vgnoli, D.(2021)의 연구는 유럽 28개국을 대상으로 보육 비용과 출산율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보육 비용 부담이 높은 국가일수록 출산율이 낮은 경향을 보였으며, 이는 특히 저소득 가정에서 두드러졌다. 또한 보육 비용을 경감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출산율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미국의 사례를 분석한 Ghatak & Abel(2022)의 연구는 주(州)별로 상이한 보육 비용 수준이 출산 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보육 비용이 높은 주에서는 출산율이 낮고, 출산 연기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

다. 이는 육아 인력 비용 부담이 미국 내에서도 출산율 차이를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보여준다.

최근 중국에서는 육아 인력 비용을 경감하기 위한 '셋째 아이 출산 장려 정책'의 효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Ning et al.(2023)의 연구는 이러한 정책이 단기적으로 출산율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지만, 육아 인력 공급의 확대와 비용 지원이 병행되지 않는 한 그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한다.

이와 유사하게, 홍콩에서도 육아 인력 비용은 출산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X. Lily & M. Joyce(2019)의 연구에 따르면, 홍콩의 높은 보육 비용과 제한적인 정책 지원은 맞벌이 부부들의 출산 기피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상의 사례들은 육아 인력 비용이 국가를 막론하고 출산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영향의 정도와 양상은 각국의 사회경제적 여건, 정책 환경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따라서 육아 인력 비용 문제에 대한 정책적 대응도 이러한 맥락을 고려하여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특히, 육아 인력의 공급 확대와 처우 개선, 보육 서비스의 질 제고, 비용 지원 정책의 실효성 강화 등은 공통적으로 강조되는 과제이다. 이는 단순히 육아 비용 부담을 경감하는 차원을 넘어, 사회 전반의 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부모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며,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도모하는 종합적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2. 정책적 시사점 및 연구의 함의

본 연구는 육아 인력 비용과 출산율 간의 관계를 다각도로 분석하였다. 핵심 요인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육아 비용의 경제적 부담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며, 이는 출산 의사결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영향은 특히 저소득 가정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9].

둘째, 육아 인력 비용의 증가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여성이 경력과 육아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는 상황은 출산율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10].

셋째, 정부의 육아 지원 정책, 특히 육아 인력 비용 지원과 관련된 정책은 출산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보육 서비스 확대, 육아 휴직 제도 강화, 비용 지원 등의 정책적 개입은 가정의 육아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율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11].

넷째, 육아 인력 비용 외에도 사회문화적 요인이 출산율에 영향을 미친다. 성 역할에 대한 인식, 가족 가치관, 사회적 지원 체계 등이 육아 비용 부담과 결합하여 출산 행태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친다 [12].

이러한 핵심 요인들은 육아 인력 비용과 출산율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특히, 육아 인력 비용 지원 정책의 설계와 이행에 있어 이러한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연구 결과가 제시하는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는 출산율을 제고하고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육아 비용, 특히 육아 인력 비용을 지원하는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이는 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정 투입의 확대, 보육 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 등을 통해 실현될 수 있다[13].

둘째, 육아 지원 정책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일-가정 양립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육아 휴직 제도의 활성화, 유연 근무제 확대, 아버지의 육아 참여 장려 등이 주요 과제로 부각된다[14]. 이는 성 평등 문화의 확산과 더불어 추진될 때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셋째, 육아 비용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회경제적 여건과 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접근이 필요하다. 보편적 지원과 선별적 지원의 조화, 지역별 편차에 대한 고려, 문화적 배경에 대한 이해 등이 정책 설계에 반영되어야 한다[15].

본 연구가 갖는 사회적 의미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육아 인력 비용 부담은 개별 가정의 문제를 넘어 사회 전체가 공유해야 할 과제를 환기시킨다. 이는 아동 돌봄에 대한 사회적 책임 인식을 제고하고, 함께 육아하는 공동체 문화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16].

둘째, 육아 지원 정책 강화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넘어 사회 통합과 지속가능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 세대 간 연대 강화, 성 평등 실현, 삶의 질 향상 등의 사회적 가치 실현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1].

셋째, 국가 간 비교 연구를 통해 도출된 시사점은 각국의 육아 정책 발전에 유용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다. 정책 경험의 공유와 상호 학습은 보다 효과적인 육

아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2].

이처럼 육아 인력 비용과 출산율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저출산 시대 육아 정책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기초를 제공한다. 이는 단순히 출산율 제고라는 단기적 목표를 넘어,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인 사회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육아에 대한 사회적 투자 확대와 함께 돌봄의 가치를 존중하는 문화 확산이 병행될 때, 보다 나은 미래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References

- [1] Wang, J., Du, W., & Zhang, Q. (2022). The fertility effect of fiscal subsidies for raising children: Evidence from China's birth promotion policies. *Journal of Population Economics*, 1-26.
- [2] Miyake, Y. (2023). Impacts of public capital investment and childcare support on economic growth and welfare. *Public Sector Economics*, 47(1), 123-141.
- [3] Rizzi, E. L., & Rees, S. (2023). Does the Belgian family policy support fertility and gender equality?. *Journal of Population Research*, 1-20.
- [4] McLean, H., Abebe, T., & Delany, S. (2017). Planning for child care in new developments: Perspective of Australian local government planners. *PloS One*, 12(5), e0176661.
- [5] Goodman, Doug & Bae, Kwang Bin. (2014). The Influence of Family-Friendly Policies on Turnover and Performance in South Korea. *Public personnel management*. 43. 520-542.
- [6] Zeman, K., Beaujouan, É., Brzozowska, Z., & Sobotka, T. (2018). Cohort fertility decline in low fertility countries: Decomposition using parity progression ratios. *Demographic Research*, 38, 651-690.
- [7] Cazzola, A., Pasquini, L., & Angeli, A. (2016). The relationship between unemployment and fertility in Italy: A time-series analysis. *Demographic Research*, 34, 1-38.
- [8] Caltabiano, M., Comolli, C. L., & Rosina, A. (2019). The effect of the Great Recession on permanent childlessness in Italy. *Demographic Research*, 37, 635-668.
- [9] Lebano, A., & Jamieson, L. (2020). Childbearing in Italy and Spain: Postponement narratives.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46(1),

121–144.

- [10] Vignoli, D., Guetto, R., Bazzani, G., Pirani, E., & Minello, A. (2020). A reflection on economic uncertainty and fertility in Europe: The narrative framework. *Genus*, 76(1), 1–27.
- [11] Lu, R., Gauthier, A. & Stulp, G. Fertility preferences in China in the twenty-first century. *Journal of Population Research* 40, 8 (2023).
- [12] Duvander, A. Z., & Ellingsæter, A. L. (2016). Cash for childcare schemes in the Nordic welfare states: diverse paths, diverse outcomes. *European Societies*, 18(1), 70–90.
- [13] Kolk, M. (2019). Weak support for a U-shaped pattern between societal gender equality and fertility when comparing societies across time. *Demographic Research*, 40, 27–48.
- [14] Atake, Esso-Hanam & Ali, Pitaloumani. (2019). Women's empowerment and fertility preferences in high fertility countries in Sub-Saharan Africa. *BMC Women's Health*. 19.
- [15] Novaira Junaid et al. (2021). Policy Report: FEMALE LABOUR FORCE PARTICIPATION RATE IN PUNJAB: CHALLENGES AND WAY FORWARD
- [16] H. Kulu et al. (2015). A comparative study on fertility among the descendants of immigrants in Europe. *Families and Societies*, 40.